다산포럼

내 마음에서 꺼내 쓰는 평화롭고 행복한 성품

금강
미황사 주지 스님

손님이 찾아오면 늘 건네는 것이 녹차 석잔이다. 차를 한잔 건네며, 색깔과 맛과 향기를 음미하며 천천히 마셔보라 권한다. 우리나라 작설차는 맑은 비췻빛과 달고 부드러운 맛과 네 가지 향기(진향(眞香)·난향(蘭香)·청향(淸香)·순향(純香))를 갖춘 것을 최고로 친다.

차 잎을 가장 좋은 시기와 날씨에 따서 정성스럽게 덖어 만든 진차(眞茶)와 맛있고 좋은 물을 가려 은근한 불로 골고루 잘 익혀 끓인 진수(眞水)를 중정(가장 합당한 차의 양과 물로 우려내는 것)으로 달여 내면 그 색과 향과 맛이 정점에 다다른다.

차 한 잔 속에 참선수행에서 얻어지는 삼매의 맛과 같은 환희로움의 경지가 담긴다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다선일미(茶禪一味)라고 한다.

중국 달마대사의 법맥을 잇는 육조 혜능대사는 자유로움과 평화로움과 행복함은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고 했다. 그 성품은 무주(無住 : 머물지 않는다), 무념(無念 : 번뇌와 망상이 없다), 무상(無相 : 고정된 생각이 없다)하다.

가까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해보자. 돈을 빌려주고 난 후에는 혹시 돌려달라고 재촉하거나 생색내는 것 아닌가 싫어서 친구 만나기를 꺼릴 수 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도 후회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에 머물러 자유롭지 못한 데서 생겨난 행동이다.

본래 번뇌와 망상없이 늘 평화로운데 눈, 귀, 코, 혀, 피부가 대상을 만나서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는 분별을 끊임없이 일으킨다. 또한 과거의 경험이 현재 나의 망상을 만나고, 이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확대 재생산한다.

옛날에 하루에도 오만가지 생각을 한다는 말이 있다.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볼 때에도 눈은 활자를 따라가는데 눈에 들어오는 단어에 따라 다른 생각에 빠져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그렇다.

또 한가지, 여기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아버지가 웃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노래 부르기도 한다. 그런 아버지가 앞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가장 좋아했던 때의 아버지와 친구의 아버지, 그리고 소설책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이미지를 덧씌워 좋은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나쁜 아버지라 이름 붙이기도 한다.

내 관념이 만들어낸 아버지의 이미지가 진짜 아버지로 둔갑해버리는 것이다. 어디 아버지뿐인가. 선생님, 남편, 아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 요구대로 만들어진 상(相)을 기대한다. 그 상이 늘 만족스러울 수 없기에 실망과 갈등이 생겨 불행해지는 것이다. 색안경을 쓰고 세상이 노랗다 빨갛다 하는 격이다. 색안경을 벗으면 해결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다.

이렇듯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어두운 것처럼 우리가 시시각각 만들어내는 집착하는 마음과 복잡한 생각과 고정된 생각은 우리들을 얽매이고, 혼란스럽고, 불행하게 왜곡시킨다.

우리는 밖으로도 분주하게 찾는다. 나에게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달력의 붉은 글씨, 배낭 메고 세계일주하는 때, 학교 졸업 후, 아이들이 결혼 한 다음일까?

나에게 평화로운 곳은 어디에 있는가. 안정된 내 집이나 방, 남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곳을 찾는 것일까?

나에게 행복한 시간은 언제인가. 멋진 옷을 입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며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영화 한 편을 보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일까?

차를 마실 때 순수한 색과 향과 맛을 우려내듯이 머물지 않는 성품에서 자유로움을 찾고, 번뇌와 망상이 없는 성품에서 평화로움을 찾고, 고정된 생각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

오늘 아침 작설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롯이 색, 향, 맛의 삼매에 든다. 군더더기 없는 다선일미의 경지다. 참 성품의 경지다.

기고

알면 약이 되는 '2013 달라지는 지방세'

민진기
광주시 세정담당관

보통 현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 달라지는 제도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이는 달라진 제도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나 불이익 등이 연관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연초 달라진 제도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현대인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항목이라 하겠다. 올해 달라진 지방세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국내외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비과세,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감면기간이 연장되거나 확대됐으며 납세자의 편익과 공정과세 부분은 강화됐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비과세 감면제도에 있어서 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와 경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일몰기한을 연장하였고,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확대했다. 또, 민간역모기지 담보제공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것이 신설되는 등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지방세 감면을 확대·연장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둘째, 납세자 편익을 위해 종전 자동차 소유자가 이전·말소한 경우 과세권자가 사후 정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함으로써 제도상 어쩔 수 없이 과오납금이 발생하던 것을 소유권 양도·말소 등록자가 자동차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상 발생하는 과오납금과 미래의 잠재적 체납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매년 7월과 9월에 고지하는 대중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 편익을 위하여 5만 원 이하 소액을 7월에 일괄 고지하던 것을 10만 원 이내까지 확대함으로써 애초 제도 도입취지를 보완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사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지방세 세금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시행된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셋째, 공정과세를 위하여 지방세 가산세제도를 국세와 같이 개선하였다. 지금까지 지방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일정률(20%)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왔으나, 납세자가 단순 착오로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인하하고, 위법·부당하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인상하는 등 납세자의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차등화(10%~40%)함으로써 국세와의 형평과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9·10 정부조치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상주택거래 취득세 추가감면이 실시되어 우리 시는 1만2106건 200억 원의 감면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갔으며, 지난 9일에는 추가감면제도 연장을 위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하는 등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취득세 추가 감면의 연장은 단기적으로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납세자에게는 세부담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이 23%대로 국세의 14%대보다 높고, 취득세가 지방세의 주요 세입원임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주도의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그럼에도 정부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취득세 추가감면이 실시되어야 한다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세수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친서민 세제지원에 관한 내용이 많은 만큼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으로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직접 쓰이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

기고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들에게 배우다

이정철
광주 인성고 1학년

짧지만 긴 광주YMCA 청소년 해외자원 활동의 일정을 마치고 필자를 비롯한 19명의 청소년이 한국에 도착했다. 1월 8일~18일까지 11일간 자원활동과 문화탐방, 청소년교류로 구성된 활동이었다. 공모와 면접을 통해 선정된 우리들은 태국으로 건너가 의료조사, 환경조사, 진료지원이라는 3개의 큰 주제 아래 3개의 팀으로 나눠 활동했다. 기본적인 진료지원을 전제로 현지 수질환경을 조사하고 아이들에게 구충제를 먹이는 등의 활동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전에 2번이나 팀 미팅을 가졌고 3번의 지구시민 워크숍 활동을 진행했다.

의료 및 환경 자원 활동은 상대적으로 지원과 시설이 부족한 산족아이들에게 있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는 활동이다. 우리는 태국 치앙마이의 카렌족 마을의 옴렛 지역과 메홍선 지역의 산족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의료 및 환경 자원 활동이라는 기본적 목적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자는 부 목적도 있었다. 그래서 태국치앙마이 문화탐방과 문화교류 활동을 위해 치앙마이 YMCA친구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준비됐다. 태국 치앙마이 문화탐방을 통해 우리는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태국의 문화를 잠시나마 보고 느낄 수 있었다. 트래킹 활동도 공동체 정신을 기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치앙마이 YMCA친구들에게는 우리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알려주고 싶어 간단한 공연을 준비해가기도 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았던 공연이었지만, 그들이 우리와 말춤을 함께 추며 어울리는 고정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구 말대로 틀린 것은 없었다. 다름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번 경험은 한마디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동안 마음에만 품고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직접 느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산족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는지 책과 영상으로만 접했던 나에게,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 자체가 배움과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필자는 신체계측과 구충제를 먹이는 활동을 하는 의료조사팀의 팀원이었지만, 환경조사팀의 사전모임에 참여하는 등 환경조사팀의 일원으로도 활동했다. 많은 활동을 한 덕분에 현지인들과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그들의 구김 없는 미소와 맑은 순수함은 필자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태국이란 나라에 가서 했던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해외자원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공부를 하거나 이야기를 들어서 혹은 영상을 접해 알 수 있는 것과 직접 가서 피부로 느끼고, 배우는 것은 많이 다르다. 필자의 경우에도 솔직히 이번 활동기간에 불편한 점도 많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면도 있었지만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정신과 배려로 이러한 점을 보완해 가려고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서 그러한 활동들을 한 나로서는 우리가 얻고 배워오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해외자원활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나의 비전을 세우는데 있어서 훌륭한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과속 단속 방지 '반사 번호판' 버젓이 팔아서야

며칠 전 지방에 가던 길이었다. 한적한 4차선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멀찍이서 '과속 단속 카메라 무용지물'이라고 쓴 커다란 풋말이 보였다. 그리고 한 남자가 길가에서 차를 세워보라는 시늉을 연신 해대고 거기에 맞춰 몇 대의 승용차들이 섰다. 나도 호기심에 차를 세우고 보았는데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한 소위 특수 번호판 판매 장사꾼이었다. 그냥 돌아나오려고 하다가 호기심이 발동해 들어봤더니 꺾기 번호판에 이어 단속 카메라에 인식되지 않는 반사 번호판이라는 걸 판다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파는 단속 카메라를 피하게 해준다는 이른바 '반사 보조번호판'은 단속카메라에서 플래시가 터지면 반사번호판 테두리에서 빛을 반사해 단속카메라의 번호판 인식을 막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장사꾼은 이런 반사 보조번호판은 인터넷에서 예전부터 팔던 거라며 모르는 사람만 바보라고 말했다. 단속에 걸릴 경우 100% 환불까지 하겠다는 공언을 해댔다.

이 번호판은 단속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는 그럴싸한 선전까지 했다.

장사꾼은 디지털카메라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반사번호판이 달려있는 자기 승용차에 대고 플래시를 터트려 사진을 찍은 다음 즉석에서 디지털 영상을 보여줬는데 정말 자동차 넘버를 인식하지 못했다. 값도 만원이 채 안됐다.

나는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껴 구입하지 않았지만 과속을 단속하는 장비에 맞서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장비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는 수법에 놀랍기만 하다. 이것이 실제로 무작정 팔리고 차량이 그걸 믿고 마구 달리면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또한 크게 늘어만 갈 것이다. 이런 물건은 팔지도 말아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운전자들 스스로 이런 물건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 교통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신재민·전남 목포시 수강동

社說

박근혜 당선인 대통합 약속 저버릴 건가

호남차별 해소 등을 근간으로 '국민대통합'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전남지역민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인수위 활동 과정에 국민대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산 등 특정지역에 대한 정책 편중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지 3주가 지났으나 '국민대통합'의 상징적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당장, 정부조직개편에서 지역발전위원회는 당초의 '균형'이라는 명칭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계획 수정을 시사했음에도 호남 소외의 상징인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수정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 박 당선인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해수부와 탄소배출권거래소, 해양금융공사의 부산 유치설 등도 흘러 나오고 있다. 특히 탄소거래소는 그동안 전남도가 유치에 적극 나섰었다는 점에서 나주혁신도시로, 해수부는 전남이 전국 제1의 수산도라는 점에서 전남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해온 지역민들로선 우려감 또한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대선 때 박 당선인이 했던 지역공약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인수위 차원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남해안 KTX 건설 등 14개 지역 공약 추진을 위한 구체 방안을 내놓지 않은 탓이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호남 관련 공약을 정책에 반영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울러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도 지역 관련 현안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야 할 것이다.

진도양식사업 갈등 큰 틀서 득실 따져야

중국 거대 자본인 장자도그룹의 전남지역 전복양식산업 진출을 둘러싼 진도군과 전남도 간에 마찰이 심상찮다. 진도군은 국내에선 처음인 외국 자본의 가두리 양식장 운영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승인을 요청했지만, 전남도는 전복시장 잠식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해 부정적이다.

진도군은 지난 2010년 장자도그룹과 1차로 1억 달러(1100억 원)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내면 나리 일대 16만5000㎡의 부지에 해삼·전복 등 수산물 가공공장과 전복물류센터, 해삼종묘배양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후 2011년 전남도로부터 양식어업 승인을 받아 '장자도 한국(주)'을 설립, 유치자금 115억 원으로 부지 매입 등을 끝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진도군이 어류·해삼을 대상으로 한 기존 양식어업 승인에서 전복까지 가능한 '복합'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장자도 측이 전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도에 '전복 양식섬'을 조성하려는 전남도와 완도지역 전복양식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진도군과 지역 양식어민들은 지금까지 전복의 어린 치패와 중간패를 완도지역에 헐값으로 넘겨왔다며 중국 대기업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안정적인 공급을 물론 생산량 증가와 가공·유통·수출시스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완도군과 전남도는 전복시장 잠식에 우려가 크다. 장자도 측이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전복 치패와 중간패를 모두 매입할 계획으로 있어 그동안 진도 물량을 공급받았던 완도 양식어민들로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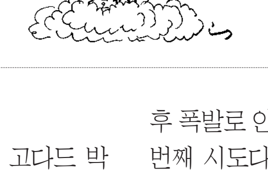
따라서 진도군은 대승적 차원에서 전복의 포함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남도와 완도군도 치패와 중간패를 헐값이 아닌 제대로 값을 치를 수 있도록 지도·독려하고, 향후 피해가 없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나로호의 꿈

20세기 초 영화계와 과학계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주여행을 꿈꾸고 있었다. 초기 영화산업을 개척한 프랑스 영화감독 조르주 멜리에스는 1902년 발표한 '달나라 여행'이라는 영화에서 대포에 인간이 탄 우주선을 탄환처럼 쏘아 달에 보내는 영상을 선보여 대중을 놀라게 했다.

반면 같은 시기 러시아 과학자 치올로코프스키는 낭만적 상상력이 아니라 우주여행을 위한 수학적·과학적 이론 연구로 접근했다. 그는 1903년 출판된 '로켓을 이용한 우주탐험'이라는 책에서 지구중력을 떨치기 위해서는 다단계 로켓을 이용해 로켓의 속도가 초속 11.2㎞에 달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 로버트 고다드 박사는 액체산소와 가솔린을 이용한 액체로켓을 연구, 1926년 3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오번 들판에서 액체로켓을 2.5초 동안 56m 날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들의 로켓연구 결과에 주목, 기술정립을 한 것은 정작 독일 나치 과학자들이었다. 당초 우주여행을 위해 연구된 로켓이 인명살상용 무기로 바뀐 셈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은 각각 전리품으로 챙긴 과학자와 V2로켓을 이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무기와 함께 우주발사체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이후 대포로 달나라 여행을 간다는 영상 아이디어를 선보인지 70년이 채 되지않은 1969년 마침내 인간이 달 표면에 두 발로 서는 꿈같은 일이 실현됐다.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가 30일 오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다. 2009년 8월 위성덮개(페어링) 분리실패, 2010년 6월 발사 137초 후 폭발로 인한 궤도진입 실패에 이은 3번째 시도다. 이번에도 고흥 남열 해수욕장과 전망대 등지에서 많은 이들이 발사과정을 지켜볼 것이라 한다. 이번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쾌거를 이루길 두손 모아 빌어본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문화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